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id processes start for key Mozambique LNG and Coral packages

Total사가 주도하는 200억달러규모의 Mozambique LNG 프로젝트가 onshore pipelines에 대한 입찰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보도됨. 해당 파이프라인 공사는 가스를 플랜트로부터 LNG선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용도라고 알려짐. 한편 모잠비크에서는 Eni의 Coral Floating LNG Company가 Coral Sul liquefaction vessel의 유지보수를 위한 tender process를 착수했다고 보도됨. (Upstream)

Strong box rebound causes Moody's to switch stance on Maersk

Moody's Investors Service가 AP Moller-Maersk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보도됨. COVID-19발 시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 운임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신용등급 상향의 주 요인이라고 보도됨. 현재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채무개선세를 보인다면 추가적인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Hapag 신용, 10년 만에 최고

Standard & Poor's(S&P)가 독일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의 신용 등급을 지난 2010년 이 선사에 대한 기업평가를 개시한 이후 최고 등급으로 높였다고 보도됨. B+에서 BB-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12척의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려는 선사의 계획에 긍정적이라고 보도됨. 앞서 Hapag-Lloyd는 2023년 인도예정으로 23,000TEU급 컨테이너선 6+6척에 대한 견적을 조선사에 요청해 높은 상황이라고 알려짐. (선박뉴스)

현대중공업주 회사채에 세 배 수요 몰려

현대중공업주사가 발행하는 800억원 규모 3년 만기 회사채 수요예측에 2,470억원 규모 기관 수요가 참여했다고 보도됨. IB 업계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올해 A- 회사채 가운데 가장 뛰어난 흥행 성적을 냈다"고 밝힘. 조달 자금은 오는 12월 만기를 맞는 800억원 규모 기존 회사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한국경제)

두산인프라코어 숏리스트 `윤곽`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가 선정됐다고 보도됨. 유진그룹과 현대중공업주·KDBI 컨소시엄, PEF 운용사인 글랜우드PE, MBK파트너스,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 6~7곳이 숏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알려짐. 예비입찰 단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유진그룹은 모 사모투자펀드(PEF)와 컨소시엄을 이뤄 `깜짝 후보`로 등장했다고 보도됨. (매일경제)

Singapore LNG bunkering capacity likely to hit 1m tonnes by 2021

싱가포르의 연간 LNG 벙커링 CAPA가 2021년까지 백만톤에 이를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싱가포르 관계자는 연 간 300건의 ship-to-ship LNG bunkering 시행이 가능하며 이미 매년 270건 이상의 truck-to-ship LNG bunkering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힘. IMO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이 CAPA 확대의 주 이유라고 보도됨. (Upstream)